

총선 한달 앞인데...민생당, 선대위 발족도 못하고 사분오열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 여부
공관위 구성 놓고 지도부 갈등
광주·전남 현역의원들
“개인 역량으로 선거 치를 판”

민생당이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의 합당으로 출범한 지 2주가 지났지만 4·15 총선 비례대표 선출 등을 둘러싼 계파간 갈등으로 선거대책위원회도 출범하지 못한 채 사분오열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민생당 현역 의원들과 출마 예정자들은 민주당의 광주·전남 지역 경선 잡음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당이 제역할을 해주지 못하면서 속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다. 민생당 지도부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진보·개혁진영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 문제를 놓고 부딪혔다. 바른미래당계인 김정화 공동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비례 연합정당은 ‘진보 연합정당’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우리당이 참여한다면, 중도개혁세력을 결집해야 할 우리 당의 목에 스스로 칼을 찌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안신당계인 유성엽 공동대표는 “미래통합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비례 전용정당’을 운영 중”이라며 “적폐세력에게 1당을 내주고, 정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며 당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론을 폈다.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 출신인 박주현 공동대표는 “미래청년세대와 소상공인 등 경제약자들이 전면에 나서는 제3지대 선거연합을 통해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며 또 다른 의견을 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비례대표 선출을 비롯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문제를 둘러싼 격론이 벌어졌다. 김 공동대표 측은 공관위 9명 중 바른미래당계가 5명이 포함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유 공동대표와 박 공동대표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원외인 김 공동대표 측은 비례대표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넣자고 주장하자 현역 비례대표인 박 공동대표가 반발했고, 이에 유 공동대표가 “현 지도부는 불출마하자”는 중재 의견을 냈지만 참석자 간 언성만 높아진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실상 당내 서로 다른 계파가 한 줍도 되지 않는 비례대표에 눈독을 들이면서 좀처럼 당의 역량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민생당은 선대위 발족을 위해 지난 9일에도 최고위에서 공관위 구성 등 안건을 의결하고자 했으나, 바른미래당계가 마련해온 안에 반발한 평화당계 최고위원들이 불참하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바 있다. 이처럼 계파간 갈등으로 선거 체제 출범이 늦어지면서 이날 계획됐던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도 미뤄졌다. 지역구 후보를 정하는 공관위(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구성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처럼 돌아가자 광주·전남지역 민생당 의원들 사이에선 ‘이럴려고 통합했느냐’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한 줍도 되지 않는 바른미래당 일부 세력과 평화당 일부 세력이 당을 맡아먹고 있다”는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이럴바엔 차라리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낫겠다”는 푸념마저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민생당 국회의원은 “당이 역량을 결집하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인데 당내 일부 세력에서 비례대표에나 눈독을 들이고 있어 역량이 무너진다”며 “중앙당보다는 개인 역량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당 지역구 출마자들이 조속한 공관위와 선대위 구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선관위 검찰 고발...광산갑 이석형 후보 오늘 재심 결과 주목

시민단체 민주당에 수용 촉구
광산을 재경선 시민참여 방식
여수갑 경선은 후보 단일화 논의
‘순천·광양’을 권향엽 재심 요구

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석형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법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4·15 총선에서 좋은 후보를 뽑기 위해 결성된 ‘2020 총선시민모임’은 이날 “민주당 이용빈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을 즉각 수용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 모임은 보도자료 통해 “선관위가 이석형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만큼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재심을 유보할 근거가 사라졌다고 판단한다”면서 “이에 시민모임은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이용빈 후보의 재심 신청을 즉각 수용해서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광산을 재경선에 참여해 후보를 결정하는 ‘시민참여경선제’로 진행하기로 했다. 무작위로 주민 5만명의 명단을 받아 ARS 여론조사(안선번호 추출)로 민주당 지지 여부를 묻고 지지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앞서 민형배 예비후보는 ‘박시중 예비후보가 불법

조회한 권리당원 명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재심을 요구했고 9일 최고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광산을 예에서는 김성진 후보가 권리당원 불법 조회 사실이 적발돼 사퇴하고 박시중 후보로 단일화했다. 이 밖에도 17-19일 경선이 예정된 여수갑에서는 민주당 강화수·김유화 예비후보가 막판 후보 단일화를 논의 중이다. 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 내고 “이번 총선에서 지지층에게 확장성이 있는 후보, 민주당의 지지율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후보, 확고한 본선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김 후보에게 여론 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선 민주당 권향엽 후보가 재심을 요구하고 나섰다. 선거구획정으로 새로 편입된 순천시 해룡면(인구 5만5000명) 유권자와 권리당원들의 민의가 경선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권 예비후보는 지난 7-9일 민주당 광양·곡성·구례 경선에서 서동용 후보에게 패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코로나19 전용진료센터
전남대병원 등 4곳 지정

광주시와 전남도는 코로나19 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전용진료센터를 마련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1일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남대학교 병원과 조선대학교 병원, 순천 성가톨릭병원, 목포 한국병원 등 4곳을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응급실 감염 문제와 코로나19 환자의 치료 적기(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도는 복지부 권고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센터 등을 대상으로 중증응급진료센터를 마련했다. 중증응급센터는 복지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대한응급의학회의와 미리 논의한 뒤 함께 만든 대책으로, 세종시를 제외하고 시·도별로 최소 2개소씩 지정 운영한다.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응급실 밖에 마련된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에 따라 환자를 나누고, 각각 다른 장소에서 진료한다. 기침,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환자는 따로 마련된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를 받는다. 의료진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증상이 경미한 경우 이 격리구역에 들어올 수 없다. 증상이 없는 환자는 일반구역에서 진료를 받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산수화 한 점에 위로 받는 ‘집콕’ 생활



김은영의 ‘그림 생각’



이성길 작 ‘무이산의 아홉 굽이 경치’

(304) 와유(臥遊)

조선시대 선비들이 성리학의 교과서로 삼았던 주자(1130-1200)는 만년에 중국 남동부 제일의 명산인 무이산으로 들어갔다. 무이산 아홉 굽이의 굽이 아름다움을 마추한 주자는 ‘무이구곡가’를 짓고 자신의 학문적인 성취를 노래했다. 그 이래로 주자의 학문을 흠모했던 조선의 선비들은 무이산 대신 주자학문의 본산을 그린 ‘무이구곡도(武夷九曲圖)’를 방안에 걸어두고 누워서 감상하기를 즐겨했다. 주자를 본떠 율곡 이이도 해주 석담에 은거하여 ‘고산구곡가’를 지어 우리 산천을 노래했으며 퇴계 이황은 도산서원을 열고 ‘도산십이곡’을 지었는데 가하면, 우암 송시열도 속리산 뒤편 화양계곡으로 낙향하여 ‘화양구곡’에서 이상향을 찾으려 했다. 이렇듯 중국을 비롯한 동양의 산수화는 단순히 자연의 외양만 그린 것이 아니었는데 특히 시·서·화 활동이 생활의 일부였던 조선시대 사대부의 산수

화는 선비들이 살고 싶었던 이상화된 풍경으로 그 속에서 마음껏 유희하며 신선이 되는 삶을 꿈꾸었던 대상이기도 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선비화가 이성길(1562-?)의 ‘무이산의 아홉 굽이 경치’ (1592년 작)는 무이구곡을 상상해서 그린 것으로 화면 가득 아홉 굽이의 경치가 묘사된 두루마리 그림이다. 굽이쳐 흐르는 강줄기, 멀리 가까이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늘어난 산봉우리, 선비들이 강론과 저술작업에 전념했을 것으로 보이는 가옥 등이 장쾌하게 펼쳐져 있다. 후일 무이구곡도의 영향을 받아 그려진 금강산도 등은 우리 강산을 ‘와유’하며 감상하는 유형으로 발전했다. 온 세상이 ‘잠시 멈춤’ 상태에서 은거듯 꿈꾸며 살고 지내는 시절, 옛 선비들처럼 명승을 그린 산수화 한 점 혹은 아름다운 풍경을 누워 감상하면서 그림 속 자연에게라도 위로받고 싶은 마음 절실하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신세계안과

10인의 안과전문의 분야별 진료

노안 백내장, 스마트 라식·라섹,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